

감 동

학개 1:12-15

들어가며

포로 귀환 공동체의 상황은 별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민족들은 그들의 귀환을 곱게 보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기근을 비롯한 자연재해로 인해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망국(亡國)의 경험으로 인해 신앙의 끈마저 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신도 실패와 좌절로 인해,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느낌에 어려움을 겪었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1.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12-13)

1.1. (관찰) 그들이 들었던 목소리는 누구의 목소리였습니까?

- 1:12b ...남은 모든 백성이 ()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1.2. (관찰) 학개 선지자의 말도 사실은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 1:13a 그 때에 () 학개가 ()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1.3. (관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 정말 하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 1:13b ...여호와가 말하노니 () 하니라

1.4. (나눔1)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건물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명령은, 망국의 아픔이 있었지만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시며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그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당신의 인생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생길은 곧은길 없는 굴곡진 인생이 대부분인데, 당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2. 순종하는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14-15)

2.1. (관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은 단순한 말잔치가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곧이어 그들에게 무엇을 행하십니까?

- 1:14b ...남은 모든 백성의 ()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

2.2. (관찰) 1절과 15절을 비교할 때, 말씀이 임한 뒤 몇 일만에 공사가 재개 되었나요?

2.3. (나눔2)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또한 현재와 상관없이 먼 미래에 도래할 어떤 약속에 대한 것만도 아닙니다. 실제 하나님께서는 '지금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새로운 순종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말씀을 통해, 단지 고백적 신앙만으로 만족해하는 백성들이 아닌 실제 삶으로 순종하는 순종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며 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2.4. (나눔3)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요즘 당신의 말씀 묵상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말씀 묵상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 함께 기도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강박한 마음도 감동시키시어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이끄소서. 순종하는 백성들로 창조하여 주소서.